



한국투자증권 3분기 누적 순이익 1조 달성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1조2천43억 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거뒀던 순이익 4천208억 원 대비 무려 186.2% 증가한 수치다. 3분기 누적 매출액(영업수익)은 12조597억 원으로 0.3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21.1% 증가한 1조637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다변화한 수익구조와 사업 부문 간 시너지 창출, 고도화한 리스크 관리에 힘입은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사업 부문 간 고른 이익 증가가 눈에 띈다. IPO, 유상증자, 회사채 등 주식 및 채권 발행시장 전반에서 낸 우수한 성과로 IB 부문 수익이 크게 늘었다. 해외주식 거래 활성화와 비대면 채널 서비스 강화를 통해 위탁매매(BK) 부문에서도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다.

옵티머스 등 부실 사모펀드를 전액 보상해 고객 신뢰를 회복한 점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브랜드 가치와 신뢰 상승이 직·간접적인 자산 유입으로 이어졌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매 분기 역대급 성과를 냈다. 지난 1분기 순이익 3천506억 원으로 최고 분기 실적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2분기에는 반기 최대 실적인 순이익 5천834억 원을 달성했다.

2분기 실적에는 부실 사모펀드 전액 보상 결정에 따른 충당금 약 600억 원이 일회성 손실로 반영됐는데도 두드러진 성과를 기록했다. 선제적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이 고객과 시장의 신뢰 회복을 이

끌며 회사의 중·장기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회사의 ESG 경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요소이기도 하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6월 부실 사모펀드 10개 상품에 대한 투자 원금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밝힌 후 2개월에 걸쳐 모든 보상 업무를 마무리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상품선정위원회의 기능과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상품 사후 관리 전담 조직도 신설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재무적 성장뿐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인 사회와 환경 관련 이슈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경영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국내 증권사 중 가장 먼저 석탄 관련 투자 중단을 선언하면서 금융권의 탈석탄 흐름을 이끌기도 했다.

올해 4월 환경부가 주관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조성자로 선정돼 전담 조직인 '카본솔루션부'를 신설하고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어 5월에는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ESG 사업 추진을 위해 ESG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ESG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정일문 사장은 "세상의 가치 기준이 바뀌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한국투자증권은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실행하면서 대한민국 자본시장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원칙은 곧게 믿음은 곧게

금융이 지켜야 할 원칙
고객과 지켜야 할 약속
한국투자증권이 지켜갑니다